

전남도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2024년까지 공공임대 6594세대
7월까지 4만2000가구 주거급여
저소득층·유공자 주거개선 지원
농어촌 장애인 145가구 주택개조

형 공공주택,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와 국가유공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버 임대주택 등으로 추진한다. 2024년까지 30개소 총 6594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0개소 2254세대는 준공했으며, 10개소 2630세대는 공사 중, 10개소 1710세대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도민이 대상이다. 자가 주택인 경우 주택 수선비, 임차인 경우 일정 임차료를 지급한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세대의 만 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지낼 경우 청년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 지난 7월 말까지 도내 4만2000가구에 약 547억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행복동지 사업은 저소득 계층과 국가유공자의 생활



전남도,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서부권 주민 대상 10월부터 매주 2회

전남도는 서부권 난임부부·임산부 등을 위해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시행한다. <사진> 현재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순천(동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서부권 대상자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목포시와 협력해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대면상담을 목포시 하당 보건지소에서 10월부터 매주 2회(월·목)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신청 대상은 난임 등으로 정서

적 어려움이 있는 난임부부, 임신부, 산모, 양육도 및 배우자다. 서부권에서 상담을 원하는 대상자는 센터나 누리집(hwcl234.co.kr), 시·군 보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임상심리사가 상주해 난임부부 및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자조모임과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남도는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19회까지 지원하고 있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를 2022년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수원 해양쓰레기 수거 체험으로 바다 살리기

소형 쓰레기 수거 도구 개발
연내 체험 프로그램 마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전 지구적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소형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쓰기 쉬운 수거 도구를 개발, 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바다 살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사진> 해양쓰레기는 범정부적 관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앞장서 계속 수거하고 있으나, 재활용을 위해 주로 부피가 큰 것만을 처리하고 있다. 이중 플라스틱 종류는 시간이 갈수록 크기가 작아져 해양생물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산하 해양수산과학관은 패류 채취용 형망 틀에서 착안한 쓰레기 수거 도구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어린이와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자원봉사 활동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해안가 근처 무릎 정도 깊이에서 한두 명이 해안을 따라 걸면서 해변에 떠 있는 소형 해양쓰레기를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채집할 수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과학원이 위치한 여수 무술목 해안에선 수차례 정화 활동을 펼친 결과,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소형 해양쓰레기가 수거됐다. 해양수산과학관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교육·홍보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수거 체험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지구 살리기 실천 운동의 첫

출발이라고 확신, 연내 이색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이다. 박준택 원장은 "블루 이코노미 실현과 탄소중립 실천은 이같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한다"며 "전남의 비교우위 자산인 바다, 섬, 갯벌을 지키는 노력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서 20개국 바이어 수출 상담회

21일부터 4일간 농수산식품 등 판촉

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농업의 수출 총력지원을 위해 2021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미국, 중국, 태국 등 해외 20개국 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2021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수출 상담회는 첫날인 21일부터 4일간 진행한다. 상담회에는 미국, 오스트리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전남도 해외상설판매장 대표를 비롯해 아미

전 전남도 브랜드관 운영사, 해외 글로벌 기업 등 20개 나라 80개사 해외 바이어가 대거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전남도 우수 농수산식품 등 주력 분야와 소비재, 농기자재 IT 등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120여 기업이 참가하며 화상 및 현장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수출 기회를 모색한다. 주력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온라인시장을 점유한 아마존의 전남도 브랜드관 운영사가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 제품 입점을 위해 직접 참여한다. 유망품목 분야에서는 중국의 큰손 타이공 15개사가 국내 기업 50여사를 대상으로 1대1 컨설팅

및 세미나를 통해 전남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IT 강국인 중국 저장성 요정에 따라 항저우 바이어와 글로벌 공급망에 필요한 협력사 발굴 차원에서 농산물 기자재 기업 60여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9 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18개 나라 46개사 해외바이어가 참가해 24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이뤄졌다. 정한로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수출 기업을 만나면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바이어 발굴과 매칭할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며 "글로벌 파트너링을 위한 유관기관 간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 대상

전남도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에서 전국 단독으로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장성군도 공동 우수상을 받았다. '2021년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경남권 최대 규모로 10일까지 4일간 열렸다. 행사장에는 전국 지자체관 29개소(광역 3, 기초 26)가 참여해 부산·경남지역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건을 홍보했다. 전남도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수요에 맞게 지역 정책 안내 및 상담을 통해 관람객의 발걸음을 잡았다. 지속적인 인구 유치 관리를 위해 전남도 귀농

산어촌 유튜브 채널인 '귀농타임' 구독(1.45만명)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앞으로도 많은 도시민을 현장에서 만나는 박람회 참여를 확대해 미래의 전남 귀농귀촌인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11월 도 주최로 개최하는 전남 귀농귀촌 박람회에 특색 있는 콘텐츠를 운영해 귀농어귀촌인 유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다양한 지역맞춤형 귀농정책으로 매년 4만여 명의 귀농산어촌인이 지속해서 유입하는 성과(2020년 귀농·귀어 전국 1위)를 거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재난안전 유공 '다산안전대상' 후보 추천 접수

3개 부문 11월 12일까지

전남도가 체계적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에 힘쓴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4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후보자를 11월 12일까지 공모한다. 다산안전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묵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적극적 대응 등 사람 중심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도민이 안심하고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주는 포상이다. 안전 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개인, 사·군, 기관·단체·기업 등 3개 부문 9명을 선발하며, 개인 100만원, 시·군 1억원, 우수 기관·단체·기업 3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남도 주민등록 또는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공고일 현재 전남에서 경영을 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남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